

## 링사고와 골든타임

도승진

한국권투인협회 부회장 링닥터

심각한 외상환자는 병원에 오면 30분내로 수술실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국종교수는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렇게 말한 이유는 현실에서 많은 여건들이 종종 그렇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링닥터를 맡아 오면서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3번의 뇌출혈 부상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수많은 부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속한 한국권투인협회는 최요삼 선수의 링사고 이후 만든 단체라 처음부터 뇌부상을 염두에 두고 시합장을 선택했습니다.

10년 넘게 국립의료원 바로 옆 중구구민회관에서 1년에 4차례 우리나라 가장 큰 규모의 전국생활복싱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골든타임은 신속하게 진단하고 병원에 후송하는 시간입니다. 뇌출혈 부상 진단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말을 걸고 혀가 꼬이고 어지럽고 토하고 동공이 풀리고 증상은 급작스럽게 오니까요. 진단하고 바로 옆 국립의료원으로 이송하고 CT 판독까지 약 25분 걸렸습니다. 응급실 신경외과 레지던트에게 가자마자 뇌출혈 부상으로 의심되니 바로 수술준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촬영 후, CT사진 확인하고 바로 삭발하고 그런데 암초가 있었습니다. 보호자 연락하고 병원에 와서 동의를 받는데 또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며 초조했던 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수술실로 들여보내려는데 병원에서 어떤 아줌마가 보호자에게 서울대병원으로 옮기라고 참견까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화도 못내고 그 심정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훈으로 모든 복싱경기는 신경외과 집도의가 바로 수술 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병원과 멀면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서명과정에서 결코 골든타임이 방해받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충남 청양에서 링사고 후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

니다. 그 전에 아마추어복싱대회가 경북 봉화에서 계속 열렸었죠. 우리의 경험을 통해 봉화같이 도심에서 먼 지방에서는 복싱경기를 하면 안된다고 수차례 투고도 하고 선배들께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합이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으로 경기를 치르다보니 현실적으로 지방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경기를 치르면 그 지역에서 복싱관계자들 선수와 가족들 밥도 사먹고 잠도 자고 그 지역 시장에 활성화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결국 경제적인 논리가 선수의 안전을 앞서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링닥터가 준비할 점은 부상 시 어느 병원으로 후송할 지 그리고 이동 동선을 미리 예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골든타임은 얼마나 정확하게 시합을 중단시키나 하는 문제입니다. 권투경기는 어떤 시합이냐에 따라 경기의 중단에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생활복싱은 선수들의 내구력이 약해 부상이 많으니 선수안전이 제일이겠죠. 하지만 프로복싱이나 특히 타이틀전이면 웬만한 부상으로 경기중단은 쉽지 않습니다. 비골골절, 안와골절, 악골골절 등 많은 골절 부상의 경우도 경기의 마지막 라운드를 마치고 병원에 가는 현실입니다.

KBI 복싱대회에서는 뇌출혈 부상중 두 건은 고개가 젓혀지며 펀치를 허용하자 바로 스텐딩다운을 선언하고 경기중지 사인을 보냈습니다. 링에서 내려오는 선수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니 괜찮아요 하며 마치 한대 맞은걸로 시합 중단시켜서 무척 섭섭하다는 듯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5분후에 선수는 어지럽다 호소하고 쓰러졌습니다. 한 선수는 시합을 이기고 내려와 쉬고 있다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후송하였습니다. 뇌출혈 부상은 KO가 아닌 상황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수 표정이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이런 점은 주심의 역할이 큼니다.

세계 중요 타이틀전은 항상 익숙한 레프리가 링에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심의 실력 때문이죠.

교신저자: 도승진

누가치과의원, 서울 서초구 효령로 1533

Tel: 02-597-7888 E-mail: dsj0525@hanmail.net



**Figure 1.** 리사고와 골든타임 1: 강종수 선수의 경기사진으로 본 시합에서 상대선수는 뇌출혈부상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다. 라운드 후 윤이 좋게 뇌출혈을 발견하였으며, 수술을 통하여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만약, 상대선수가 사망에 이르렀으면 승리한 선수또한 선수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다.



**Figure 2.** 링사고와 골든타임2: 링사고로 숨진 고 김형희선수의 경기 사진이다. 이 경기는 심판이나 레프리가 안타깝게도 시합을 중지시키지 못하였고, 링닥터도 경험이 없는 분이였다. 그리고 후송된 병원에는 CT장비를 갖추지 못한 중소병원으로 전체적인 응급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경우였다.

선수의 계속적인 뒷걸음, 순간 레프리를 쳐다보는 눈짓, 다운시 세컨을 바라보는 행동이라든지, 의식을 잃어가는 데 스스로 정신을 차려보려 눈을 깊게 깜박거리든지, 아님 머리를 흔들며 본다든지 하는 행동을 실력있는 주심은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죠. 주심이 못하면 링닥터가 사인을 줘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프로시합에서 심판위원장에게 경기를 중단시키라고 사인도 보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심판들과 소통하고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승부에 집착하는게 복싱경기라서 때로 안전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부상선수를 관찰하는 실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중국 서안에서 WBC 유스챔피언 타이틀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강종선 선수는 데뷔 때 제가 유망주로 보고 신문에 관전평도 써 주고 유명우 버팔로프로모션에서 에이스로 키우고 있는 선수입니다

강종선 선수 트레이너인 임홍진 관장은 경기 직후 저에게 승리 사진과 감사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임홍진 관장과 저와 나눈 카톡대화를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임홍진 전일복싱관장 : 원장님 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승진: 정말 축하드립니다 한국축구월드컵 결승보다 종선이 승리가 더 기쁩니다. 빨리 동영상 보고 싶습니다.

임홍진 전일복싱 관장: 네 지금 인천공항에서 광주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일 중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날 버팔로프로모션 블로그를 통해서 시합동영상을 봤습니다. 멀리서 찍은 동영상이라 선수 얼굴이나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선수 움직임은 충분히 관찰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승리한 선수에 집중해서 보게 되지만 저는 오랜 링닥터 습관으로 진 선수에게 먼저 관심이 가게 됩니다

도승진 : 종선이 짧은 동영상 봤습니다. 이번엔 파워가 좋네요. 한가지 걱정은 상대선수 경기 후 쓰러지는 모습을 보니 전형적인 뇌출혈 부상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어지러워하는 모습도 보이고 시간이 갈수록 힘이 없어 하는 것이 뇌부상이 의심됩니다.

만약 상대선수 큰 부상이면 종선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는 걱정도 듭니다. 상대선수 괜찮았죠?

임홍진 전일복싱관장: 네 원장님 뇌출혈 맞습니다. 경기 후 바로 수술을 받았구요. 수술은 잘 되었답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승진: 다행입니다 동영상 다시 보니 이번에 운이 많이 따랐습니다. 오랫동안 링닥터하면서 심각한 뇌출혈 부상을 세번이나 겪었죠. 이번에도 종이 울려서 살았지 라운드가 길어졌으면 상대선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수술도 어느정도 부상이냐에 따라 다른데 상대선수 수술 잘 되어서 선수에게도, 종선에게도 참으로 다행입니다.

임홍진 전 일복싱관장 : 승리의 기쁨만 누리고 있었는데 그 부분까진 생각 못했네요. 종선이 마음이 여리고 착한애라서.. 다행입니다.

경기는 4라운드 종료 후 쉬는 시간이 지나고 5라운드 시작하자 선수는 쓰러지고 경기를 포기 하였습니다. 선수 관찰은 경기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뇌출혈 부상을 의심하는 것은 4라운드때 상대 선수는 힘있는 펀치가 나옵니다. 탈진은 아니죠. 결코 지친 모습이 아니니까요. 그럼 계속 밀리니 자신이 없어서? 권투인들은 펀치 나오는 것만 보면 알 수 있죠. 자신 없는 선수에게서 저런 펀치 안 나오죠. 그럼 펀치의 후유증으로? 그렇다면 시간이 갈수록 회복되어야죠. 멀리서 찍은 동영상이지만 신경외과의사들은 선수의 행동을 보고 바로 뇌부상을 직감할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스포츠닥터라면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사망까지 이르게 되지 않은 점은 바로 뇌출혈 후 더 이상 펀치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링사고의 골든타임입니다.

제가 경험한 시합에서도 심각한 뇌출혈이 있었지만 라운드가 짧아서 사망까지 이르지 않는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트레이너와 심판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링닥터의 준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선수의 링사고는 심판이나 트레이너 상대선수 등 두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상대선수는 결국 링을 떠나게 되고 심판이나 트레이너는 평생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또 한명의 용기 있고 최선을 다하던 복서도 꿈을 접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권투경기의 두개의 골든타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